

“마을공동체가 무주의 힘” ‘문화·예술로 하나된 장수’

무주군 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 시상식·축하공연·전시회 등 진행

‘2025 무주군 공동체한마당’ 행사가 23일 적상면에 위치한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사)마을을잇는사람들과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 화합을 다지며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14개 시·군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등 3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를 요대마을과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박경숙 팀장이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무풍실 승지문화센터 이대석 위원장이 국회의원상, 안성면 사교마을과 조명재 활동가가 무주군의회의 의장상을 수상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김동열 활동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협의회장상을, 마을너무스 김경숙 특파원과 예경아 특파원은 (사)마을을잇는사람들 이사장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예요리름 구정희 강사와 춤이디 조윤정 회원이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상을 수상했다.



‘2025 무주군 공동체한마당’ 행사가 23일 적상면에 위치한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핵심”이라며 “이 자리에서 모아진 힘이 결국,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도 거뜰히 넘어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개회식 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무주군 공동체 한마당’, ‘오늘이 아름다운 자연특별시 무주’,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전북의 꿈을 이룬다’를 기원하는 수

진 퍼포먼스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주계음우회 남산시니어의 ‘색소폰 연주’와 안성면 사교마을 ‘뮤지컬’, 밴드 공연, M예수단의 순가락 난타 등으로 이어진 축하 공연과 마을 대항 ‘고무신 던지기’, 상설 게임으로 진행된 ‘뽕지치기’, ‘사진찍기’, ‘컵쌓기’ 등도 호응을 얻었다. 별도의 부스에서는 마을공동체, 소규모공동체 활동 성과물인 ‘서양화’, ‘손뜨개 생활자수’, ‘다만공예’ 등 11개 분야의 작품 전시회가 마련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선정 12개 시군 포함해야”

진안군 사회단체

진안군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시범지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진안군 이장단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의용소방대, 새마을지회,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본부 진안군지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진안군 주요 사회단체는 23일 군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



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이라며 “그러나 시범지역 선정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안상용 진안군이장협의회장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신청했고, 그중 12개 시·

군이 1차 심사를 통과해 사업 역량을 입증받았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국가적 약속”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역을 포함해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의(의장 최한주)는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해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수군의회는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최종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최저 인구 규모와 열악한 소득 구조를 가진 장수군이아말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할 최적의 지역”이라며 같은 전북권에서 순창군만 선정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

책이자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국가 백년대계의 전략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말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의회는 “장수군을 포함한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이미 정책 역량을 인정받은 지역”이라며 정부에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것과, 국회에 시범지역 확대에 따른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문화·예술로 하나된 장수’

장수문화원의 날·장수문화예술인의 날 성료

장수군은 지난 22일 한누리전당 공연장에서 제4회 장수문화원의 날 및 제17회 장수문화예술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장수군이 주최, 장수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최한주 군의회의장, 한병태 전북문화원연합회장 겸 장수문화원장, 김길수 진주문화원장 등 각 시·군 문화원장과 지역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이 고고장구팀과 진주문화원 민요반의 흥겨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공로패 수여식, 식후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가수 현숙의 초청공연이 관객들의 큰 호응 속에 펼쳐졌다. 또한 한누리전당 1층 전시실에서는 장수문화원의 문화학교 강좌(민화·서각) 수강생들의 창작 작품과 함께, 지역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통해 선보인 회화·사진 작품전이 열려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특히 이날 군 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이 큰 배철호 작가에게 장수군수 공로패, 박수진 한국무용 회원은 장수군의회의 의장 감사패, 고강영 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은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장성열 장수문화원 감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공로패, 박상호 장수문화원 회원은 장수문화원장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가을맞이 무주반딧불시장 야시장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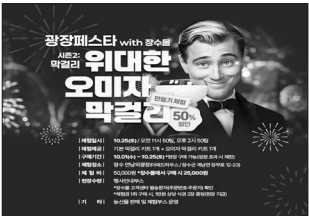
가을맞이 무주반딧불시장 야시장이 10월 24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개최된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읍상권활성화추진단(단장 최은영),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회(회장 박용식)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주반딧불시장 일원 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야시장에는 간식 및 먹거리 부스가 운영되며, 수공예품 체험 행사도 열린다. 장보기를 통해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10만 원 구매 시 2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1인 1회 응모 가능, 무주사랑상품권 최대 2만 원)



해주는 ‘열심히 장보기’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후 6시부터는 통기타 및 트로트 가수 초청 공연과 군민 노래방, 댄스 타임 등 화합의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코미디언 심형래가, 10월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가수 진시몬이 가을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광장페스타 시즌2 막걸리 만들기 체험 개최

장수군은 25일 장수 만남의 광장에서 ‘2025 광장페스타 시즌2 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명(200명)이 참여하며, 장수 오미자 등 지역 농산물 활용해 일반 막걸리와 오미자 막걸리(각 1.5L)를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장수물에서 50% 할인된 금액인 1세트 2만5천 원으로, 체험료 구매자에게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 2장(1만 원권)을 제공해 막걸리와 어울리는 한상 차림도 즐길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체험권은 장수물을 통해 사전 또는 현장 구매가 가능하며, 장수물 회원을 대상으로는 문자 홍보와 현장 안내를 병행해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달리는 국민신문고’ 31일 무주서 열린다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오는 31일 무주를 찾아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복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협업 기관의 전문 상담 인력이 무주를 소재 무주상상반디숲 다목적실에서 무주군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복지와 △신용회복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고충 상담과 권익 구제를 위한 해결책이 공유되는 현장형 민원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은 1차 무주군청 소관부서에 이관되며, 2차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 무주·함양 선진지 견학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위원장 구동수)는 23일 전북 무주 양수발전소 머루와인동굴과 경남 함양 대봉산 휴양벨리를 견학하며 양수발전소 유치 성공전략 및 발전소 연계 관광지원 발굴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방문한 ‘무주 머루와인동굴’은 무주양수발전소 건설 당시 굴착 작업용 터널을 활용하여 머루와인 저장고 및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양수발전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접목한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곳으로 위원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서 방문한 함양 대봉산 휴양벨리에서는 국내 최장의 모노레일과 집라인 등 산악형 레포츠 시설을 둘러보며, 진안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발전소 연계 관광모델 개발 가능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